

2/23/20

설교 제목: 아담에서 노아까지 여자의 후손 계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5 장 1-32 절

- (창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절관주** 대상 1:1, 마 1:1
- (창 5: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 (창 5: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창 5: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 (창 5: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 (창 5: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 (창 5: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 (창 5: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창 5: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 (창 5: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 (창 5: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절관주** 왕하 2:11, 히 11:5
- (창 5: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 (창 5: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창 5: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 (창 5: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 (창 5: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연대별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자손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인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 궁극적으로 교회인 성도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신약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신약 교회의 예표인 이스라엘 12 지파의 기원이 된 야곱의 열 12 아들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들 중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 (창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 5: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창 5: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첫째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아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거룩하고 고결하게 만들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고결함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아담은 자신처럼 훼손된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하고 결국에는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후손을 낳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극복될 때까지 첫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형상을 닮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창 5: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창 5: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창 5: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 (창 5: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 (창 5: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창 5: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창 5: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 (창 5: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본절들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낳았고' '죽었더라'라는 단어를 통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 그대로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계승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부활로 승화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 초기 인류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수를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912 세입니다.

당시 장수를 했던 원인은 창조 직후부터 대홍수 전까지의 자연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종족 번식과 말씀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 집행을 어느 정도 유예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낳고 죽은 이야기가 계속 되다가 갑자기 한 인물이 크로즈업 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 (창 5: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 (창 5: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창 5: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다'는 말은 '뜻을 좇다' '삶을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당대의 부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의 나이 365 세 때에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분명히 하심과 동시에 에녹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의 승천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와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 1: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 1: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으며 유다서에서는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주위의 불경건함을 책망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므두셀라는 969 세를 향수함으로 세상 모든 인간 중 최고의 수명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창 5: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 5: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5: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 5: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창 5: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 5: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손자요 므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셋 계열의 경건한 인물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 라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를 뜻하는 노아로 지었습니다.

삶의 고달픔을 이 아들을 통해 안위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서 타락 이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저주대로 의식주 해결을 위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죄의 쓰라린 맛을 절실히 체험해야 했습니다.

(창 5: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셋을 시조로 하는 족보가 노아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노아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사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시조로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10 대째 노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중 돋보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함께 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은 특정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있는 중에 받는 신의 은총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는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에녹과 노아에게만 나옵니다.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에녹과 노아의 일생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눈에 띄게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타락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주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거나 큰 돈을 벌어서 구제 사업을 하거나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등등 무슨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하여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주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